

작은 일기? 큰 일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한 거장들의 일기

생생한 내면의 기록, 소설보다 재미있는 일기 **4**선

앤디 워홀 일기

앤디 워홀 | 944면 | 규격외 연장정 | 29,500원

앤디 워홀은 매일 아침 9시 반, 이 책의 엮은이 팻 해켓에게 전날의 일과를 전화로 불러 주었고, 팻 해켓은 택시비와 식대를 포함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었다. 10년간 계속된 작업. 2만 장의 일기. 시대사와 예술사에 대한 빼어난 기록이다.

나의 마지막 장편 소설 ①②

존 파울즈 | 508면, 664면 | B6 권장정 | 각 15,000원

세익스피어, D. H. 로렌스를 이어받을 영국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존 파울즈. 『마법사』, 『프랑스 중위의 여자』 등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소설로 유명한 영국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가이자 세계적 작가. 동료 교사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한 명의 인간. 그런 그의 실존이 낱알이 해부된다.

빵굽는 타자기

폴 오스터 | 320면 | B6 권장정 | 10,800원

폴 오스터의 정신 세계와 작품 활동의 비밀을 풀어 주는 〈엑스 파일〉, 청년 시절의 폴 오스터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졌고 무슨 생각에 골몰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소설가로 입문하게 되었는지, 독자들을 그의 내밀한 세계로 초대한다.

통의동에서 책을 짓다

홍지웅 | 848면 | B5변형 권장정 | 19,500원

출판사의 경영인으로,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1년 1년의 아버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열린책들 홍지웅 대표의 2004년 일기. 베르베르의 책을 만들면서 있었던 일들, 건축가와 건축에 대해 나는 이야기, 번역가와 책과 삶에 대해 나는 이야기 등 그가 만나고 만들고 짓고 다니고 쓰고 찍은 2004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openbooks.co.kr

2010년 10월 8일, 지금은 편집중

『권력과 영광』 ★ 홍상희 hong@

그런 예감이 든다. 이젠 내가 만든 책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책이 될 거야. 아직 절반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 판이니, 작업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이미 넘버원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렵다. 원서를 확인하면 죄다 아는 단어들인데도 해석이 안 된다. 하지만 깊다. 주인공 사제의 독백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백과사전은 이 책을 소개하며 〈타락한 신부가 한 소년의 마음을 구원했다〉고 적어 놓았다. 이 책은 세상의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구원할 것이다. 아마도, 확실히.

buzzbook vol.2 『조르주 심농』(제목 미정) ★ 김뉴연 nuit@

로베르토 볼라노에 이어 새로운 버즈북(열린책들의 신간 예고 매체)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작가는 조르주 심농. 추리 소설 애호가라면 그저 반가울 이름이다. 평생 4백 편을 웃도는 소설을 쓰고, 약 20개에 달하는 필명을 지녔으며, 1만 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이 남자……. 풍성한 그의 삶만큼 넘치고 넘치는 자료들을 엄선하느라 즐겁고도 괴롭다. 심농의 대표적인 캐릭터, 파리 수사국 기동 수사대 반장, 매그레를 기다리시라. 75권에 달할 〈매그레 마라톤〉이 머지않았다.

『영원한 친구』 ★ 김호주 bobby@

수정 표지가 왔다. 지난번 시안이 좀 어둡다는 사장님 의견에 조금 밝게 수정해 달라고 했다. 오랜만에 나오는 르카레의 책이니만큼 기다리는 독자가 많을 터. 표지가 거의 결정되니 정말 책 나오는 일만 남은 느낌이다. 그치만 아직 OK 교정이 >.<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 강희진 coco@

아무래도 부족했을 편집자의 말로 훈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를 가지고 분위기 확 사는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 스케치 디자인이 나왔다. 한눈에 기대가 차오른다. 이렇게 좋은 소설이 이런 표지를 만나 다행이랄 정도? 본문에 내실을 기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재 초고 보듯 비장하게 재교 진행중. 이 책, 역사 교정도 한번 더 보시게 할 거다.

『미셀 푸코의 휴머니즘』과 『스피노자의 동물 우화』 ★ 진봉철 jin@

푸코와 스피노자의 철학을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신선하고 아름다운 철학책. 프랑스의 작은 출판사에서 〈비유적 의미〉라는 시리즈로 출간한 책인데, 표지와 본문 편집이 꽤나 독특하다. 가급적 원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 내년까지 이 시리즈 가운데 네 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살과 죽음의 시』 ★ 양혜진 yhj@

열린책들이 소개하는 아모스 오즈의 네 번째 작품. 〈글쓰기〉 자체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작품인 만큼 아모스 오즈의 팬이라면 그의 속내를 살짝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 열린책들에 입사해 처음 편집하는 책이라 아직은 두려움 반, 기대 반.

『메츠 에헤른』 ★ 이해정 coldperson@

아……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20세기 초 터키에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이 있었다. 더욱이 터키 정부는 지금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파울로 코시의 만화 『메츠 에헤른』을 편집하면서, 슈피겔만의 『쥐』가 떠올랐다.

『카산드라의 거울』 ★ 강무성 papafish@

한국인 김에빈이 주연 급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의 작품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 때문에 화제를 모았던 베르베르의 신작 『카산드라의 거울』, 드디어 출간 일자가 정해졌다. 2010년 11월 25일. 기다리는 독자가 많은 책이라 압박감 백 배. 작품의 화두는 〈미래〉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다면, 그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미래의 재앙을 예언하는, 그러나 자신의 과거는 전혀 모르는 소녀 카산드라의 모험이 서스펜스 넘친다. 그나저나 11월 25일 책이 무사히 나와야 일단 내 미래가…….





문학은... 무언가를 (그게 무엇이든) 범하는 것이다

VS

헤게만을 소설가라 부르는 건 동의할 수 없다. 그건 부당하다

문단의 찬사와 이어진 표절 논란! 지금 가장 핫HIA한 소설!

이런 분들은 화상 주의!

기성세대는 가라! 『호밀밭의 파수꾼』이 그림자?
성장 소설과 반항 문학의 대명사, 『호밀밭의 파수꾼』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서른두 살의 J. D. 샬린저였다. 열여섯 소녀(홀든 콜필드와 나이가 같다)의 반사회적 체험과 환각적 기억을 다룬 소설 『아홀로틀 로드킬』을 발표한 것은 열일곱 살의 헬레네 헤게만이다.

독서의 계절 가을, 그러나 차분히 책 읽기가 어렵다?

좀비스, 샬라탄스, 스탠델스, 포티세드, 키크스, 브라이언 페리,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 바이얼런트 펨, 소닉 유스, 핑크 플로이드, 너바나, 오아시스, 우탕 클랜, 아웃캐스트, 마릴린 맨슨, 앨리스 쿠퍼..... 책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뮤지션을 감상하시라.

만성 우울증이 의심된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 폭발하듯 질주하는 일상.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려는 동시에 자기 파괴감에 괴로워하는 소녀의 이야기에 위로받자.

핏속에 인터넷이 흐르나 뱀 눈보다 손이 먼저 움직인다?

『아홀로틀 로드킬』은 다양한 소스들을 DJ처럼 믹싱하는 글쓰기 방식으로 문학에서의 리믹스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작품이다. 손가락은 빠르게, 밀줄은 정확하게! 당신도 밀줄 굵기에 관대해질 것이다.

그저 아홀로틀에 반했다?

멕시코의 특정 호수에만 살며 번데 없이 일생 올챙이의 상태로 살아가는 도롱뇽 아홀로틀AXOLOTL. (우리나라에는 <우파루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다정하게 미소를 지을 줄 아는 화려한 핑크빛의 아홀로틀은 <미성년주의자>들의 심벌이 될 것이다.

AXOLOTL ROADKILL



아홀로틀 로드킬을 즐겨라!

공식 카페 개설 <http://cafe.naver.com/axolotlroadkill>

- ★ Reading Axolotl 유튜브로 아홀로틀을 읽는다!
- ★ Reader's Axolotl 나의 아홀로틀 감상기!
- ★ Axolotl Forum 표절 논란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완성을 거부한다
미완을 지향한다
단지 주어진 삶을
꼭 움켜질 뿐...

결종 위기에 처한
미성년주의자,
미프티의 파괴적 삶

미프티는 언니, 오빠, 오펠리아, 혹은 우연히 만난 친구들과 마약을 복용하고 극단적 형태의 테크노 클럽 파티를 즐긴다. 원래는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지만 미프티는 학교를 거부한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속속들이 분석해 낼 수 있는 천재성,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방치하며 즐기는 광기. 이 두 가지가 뒤엉킨 자신만의 세계에서 미프티는 남보다 이른 시기에 주어진 성인 세계의 비밀을 하나하나 체험해 간다. B6 | 336면 | 10,800원 | 열린책들 발행

About us

<보헤미안 천재 소녀> 헬레네 헤게만

1992년생. 열다섯에 연극 연출가, 열여섯에 영화감독으로 데뷔, 열일곱에 첫 소설 『아홀로틀 로드킬』 출간. 열일곱 소녀가 써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밀도 높은 언어와 정교한 구조가 돋보이는 이 작품으로 하인리히 뵐, 페터 한트케, 다니엘 퀘만의 뒤를 잇는 독일 문학의 차세대 작가로 일컬어짐.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토해 내는 열여섯 소녀의 호흡, 적재적소에 패치워크처럼 배치된 음악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낸 특유의 리듬으로 <00세대(2000년대에 성장한 세대)의 문학>을 세계에 알림. 그러나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거센 표절 논란에 휘말림.

소설가 배수아, 길게 꼬여드는 헤게만의 문장을 풀다

1993년 데뷔, 17년째 작가 활동 중.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독학자』, 『홀』, 『복쪽 거실』, 『올빼미의 없음』 등 10여권의 소설을 출간. 수년 전부터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소설을 쓰고 있음. (『아홀로틀 로드킬』의 배경인 프렌츨라우어 베르크에 방을 구해서 살기도 했음!) 번역 문학의 열혈 팬으로 매일 알라딘에서 외국 문학 신간을 떨리는 가슴으로 검색한다고. 번역한 책으로는 『불안의 꽃』, 『그곳에 집이 있었을까』, 『나의 첫 번째 티셔츠』 등 다수. 현재 <월요일 독서클럽>회원으로 활동하며 웹진 나비에 서평을 쓰고 있음.

아홀로틀 로드킬	
발행일	2010년 9월 30일 초판 1쇄
지은이	헬레네 헤게만
옮긴이	배수아
발행인	홍지웅
발행처	주식회사 열린책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99-3 파주출판도시 전화 031-955-4000 팩스 031-955-4004 www.openbooks.co.kr	
Copyright (C) 열린책들, 2010. Printed in Korea. ISBN 978-89-329-1062-8 03850	
이 도서의 국판출판권(도판 출판사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 e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번호 : CIP2010003359)	

ISBN 국제 표준 도서 번호, 지난호 <Open-the-Book>에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렸지요?

▶ 판쇄 표시 출판물의 판쇄는 책의 이력서와 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몇 번이나 인쇄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요. 판(版)은 인쇄된 저작물의 결정체를 가리킵니다. 쇄(刷)는 글자 그대로 같은 저작물을 인쇄한 횟수를 나타내지요. 흔히 <재판을 찍는 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단순한 오탈자 수정만 해서 다시 찍는 경우<재쇄를 찍는 다>고 해야 맞답니다. 판을 좀 더 세분해 볼까요?

- ▶ 초판 first edition 처음 제작된 판본
- ▶ 개정판 revised edition 초판의 내용 일부를 바꾼 판본
- ▶ 증보판 enlarged edition 초판의 내용을 늘려서 보완한 판본
- ▶ 신판 new edition 내용의 증감 없이 초판의 판면을 새로 편집한 것

▶ 정가 책값은 간기면보다 뒤표지에 표시하는 것이 책값 이상이나 표시 교체 시에 편리하죠.

▶ CIP 출판 시 도서 목록 번호, 도서관 데이터 구축에 용이하여 2003년부터 의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ISBN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번호를 부여받아 간기면에 기재됩니다. 『아홀로틀 로드킬』의 CIP 번호는 CIP2010003359. (2010)은 번호를 부여한 년도, <003359>는 책마다 부여되는 6자리 일련번호입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nl.go.kr/ecip>

참, 열린책들에서는 로마자 저작권은 4페이지에 적고 있답니다.
이제 새로운 책을 처음 만나면 간기면을 꼭 읽어 보세요!